

중요한 것은 환자를 위한 발전



산부인과 로봇수술실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사라 교수.

이사라 교수는 하루하루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 2020년 국내 최초로 천골절고정술 로봇수술 200례를 달성했고, 2023년 국내 최초 400례를 돌파했다. 이는 국내 최초뿐만 아니라 아시아 2위인 일본보다 200례 이상 많다. 천골절고정술은 여성의 골반 장기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장기가 아래쪽으로 쏠려 빠져나오는 골반장기탈출증을 치료하는 수술법이다.

이사라 교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왔다. 2015년 세계 최초로 단일공 로봇수술을 통한 천골절고정술에 성공했다. 단일공 천골절고정술은 기존 로봇수술이 환자 배에 3~4곳 이상의 절개가 필요한 것과 달리 배꼽 부위 하나의 구멍으로 수술함으로써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에는 최신 단일공 수술 기종인 다빈치SP로 천골절고정술에 성공하며 수술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미국 산부인과 내시경학회에서 이 수술 동영상을 발표하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천골절고정술 로봇수술이 보편화된 미국 의사들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수술을 동영상으로 보여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국내 최초 천골절고정술 로봇수술 400례 돌파

이사라 교수의 로봇수술 노하우는 그대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2019년 이후 산부인과 로봇수술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2022년 11월 3,000례를 돌파한 것이다. “산부인과에는 복강경 수술을 잘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로봇수술 도입이 꼭 필요할까’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개복수술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대 근종이 단일공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제거되는 걸 보고, 수술시간과 회복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로봇수술의 장점을 경험하자 로봇수술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한 로봇수술 4,370건 중 22%가 산부인과에서 이뤄졌다. 비뇨의학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술건수다.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에도 이사라 교수에게 중요한 것은 ‘최초’보다 ‘환자를 위한 발전’이다. “로봇수술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계속하는 이유도 수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서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골반장기탈출증은 수술 후 재발률이 최대 30%에 달하는데, 로봇수술로 빠르고 세밀하게 치료하면 회복기간도

짧아지고 수술 후 재발이나 합병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이라도 그게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도전해야죠.”

환자를 위해 시작한 로봇수술

이사라 교수가 처음 로봇수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의사의 한계를 로봇이 잡아준다는 점이였다. 손 떨림,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 인간이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로봇이 보완해주고, 의사의 몸 상태에 따라 수술의 질이 바뀌지 않고 안정적인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2013년 해외 연수를 떠날 때도 처음부터 그의 목표는 로봇수술을 배우는 것이었다. 로봇수술이라는 기술이 있는데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로봇수술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미국 대학 의료진을 찾아가 교육을 받고 직접 로봇수술을 참관하며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 첫 로봇수술을 집도할 때는 떨릴 수밖에 없었다. “준비를 정말 많이 했고 자신도 있었는데, 막상 일정이 잡히니 걱정이 돼서 사비를 들여서 미국으로 갔어요. 다시 한 번 더 로봇수술 과정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서 첫 수술을 할 수 있었지요.”

이런 경험이 있기에 이사라 교수는 로봇수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수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 온 해외의학자들에게 기술전수를 활발히 하고 있다. “기술을 전수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는 자기의 기술과 노하우를 숨기면 안돼요. 상대의 기술과 노하우를 받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나가야죠.”

이사라 교수는 미성년클리닉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천골절고정술 로봇수술을 하고 있는 이사라 교수.

미성년 여성의학질환 치료를 이어받아

이사라 교수 그 자신도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산부인과 강병문 교수가 평생 이끌어 온 미성년 클리닉을 전수받았다. 그는 ‘미성년 클리닉의 경우 기능회복이 중요하고 흉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로봇수술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미성년 클리닉은 선천성 기형, 성발달장애 등 흔치 않은 미성년의 여성의학질환을 다룬다. “강 교수님은 항상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라 다른 의사들이 꺼려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시며 미성년 클리닉 운영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수술법뿐 아니라 치료용 보조기구도 직접 고안하셨고요. 저도 환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환자가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의류학과 교수님과 협업해서 개선했고, 지금 환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숙제도 함께 받았다. 2020년 강 교수가 펴낸 ‘외부생식기 이상과 선천성 기형 및 성발달 장애’ 증례집을 보강하는 일이다. 강 교수가 30년간 미성년 클리닉을 운영하며 경험한 선천성 생식내분비계 이상과 외부생식기 기형 등을 치료한 사례를 집대성했다.

“사례가 적은데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헌자료도 부족한 척박한 분야라서, 이런 증례집 한 권이 귀한 자료가 됩니다. 강 교수님이 책을 내시면서 ‘누군가 이어받아서 10년 후에 개정판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이사라 교수는 ‘교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10년 뒤, 또 20년 뒤에 개정판을 계속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글 편집부